

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

한국 DAC 가입 4 년차 사업 현황과 시사점 : 한국의 국제위상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(ODA) 확대가 필요하다

현대경제연구원 | 한국경제주평 | 2013.11.4.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빈곤퇴치를 위한 무상원조 비율 확대와 공여국으로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비구속성 원조 확대 아프리카를 포함한 최빈국 및 한국전 참전국을 비롯해 과거에 빛을 진 국가들에 대한 ODA 확대

- 한국의 ODA 사업 현황
 - ODA 전체 규모는 2010 년 약 11.7 억 달러에서 2012 년 약 15.5 억 달러로 증가
 - 예산규모는 2013 년 1 조 4,255 억원(무상 7,569 억원, 유상 6,686 억원)으로 증가세 유지
- 한국 ODA 사업의 국제비교
 - 2011 년 기준 한국의 공여규모는 13 억 달러, DAC 회원국 평균은 56 억 달러
 - 2011 년 현재 무상원조 비율은 58.1%, DAC 회원국 평균 88.6%
 - 2011 년 현재 한국의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가 63.2%, DAC 회원국은 아프리카(34.7%)에 집중
 - 2011 년 기준 한국은 경제 인프라 사업(36.8%)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나 DAC 회원국들은 인도적 지원과 기초생활부문 등에 집중 지원
- 시사점
 - 정부의 ODA 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ODA 통합추진체계 개선이 과제
 -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를 위해 무상원조 비율의 확대가 필요
 - 수원국과의 동반성장 및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가 필요
 - ODA 를 통한 한국의 외교역량 확장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최빈국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
 - 한국전 참전국을 비롯해 과거에 빛을 진 국가들에 대한 ODA 확대가 필요

산업분야 ODA 의 동향과 이슈 분석

산업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 10.11

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8&ord=0&pageNo=7

개도국 지원에 적합한 산업분야 ODA 프로그램은 ‘지속가능한 전기에너지 접근성 강화’와 ‘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개발’ 등

- 우리나라 산업분야 ODA 의 지원 현황
 - 우리나라의 양자원조는 2011 년 기준 9 억 9,000 만 달러이며 이 중 산업분야 ODA 는 9,600 만 달러
 - 2005 년부터 2011 년까지 산업 ODA 섹터별 지원 현황은 ‘에너지 생산 및 공급’과 ‘정보통신’ 섹터가 각각 38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
 - 유·무상 원조의 섹터별 지원도 ‘에너지 생산 및 공급’과 ‘정보통신’ 이 대부분
 - 우리나라의 산업분야 ODA 는 주로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지원
-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차별화된 강점
 - DAC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수원국의 지위를 경험
 - 우리의 비교우위는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기간산업을 육성했다는 점
-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지원하기에 유망한 산업분야 ODA 프로그램 및 지원 적절 국가군
 - 지속가능한 전기에너지 접근성 강화: 우즈베키스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캄보디아
 -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개발: 인도네시아, 필리핀
 -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금융지원: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베트남
 - 수출 활성화 정책 및 지원시스템(금융, 통관) 구축: 우선지원 협력 대상국이 없음

문화영역 공적개발원조(ODA)활성화 방안 연구

한국문화관광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 11.

http://www.kcti.re.kr/03_1.dmw?method=view&reportId=100&isSearch=false&reportCategory=-1&reportTitle=false&userName=false&reportContent=false&reportSeq=952&pageNum=1&groupNum=1

개도국 예술가와 스포츠인들에게 장기적인 초청연수를 제공할 프로그램 개발

문화·예술·교육 분야 ODA 프로그램의 장르별 사업 확대

- 우리나라 ODA 사업의 현황과 특성: 문화영역 포함
 - 우리나라는 최빈곤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써 여타 공여국들과 구별되는 특수한 위치를 차지
 -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서구 공여국의 ODA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ODA 예산을 확대
 - 문화영역의 ODA 예산('11년 약 22억, '12년 약 35억, '13년 약 68억)은 점진적으로 증액
 - 문화영역 ODA의 효과(설문조사 결과)
 - 개도국은 문화 및 정서적 교류와 삶의 질 제고
 - 공여국은 협력 관계 구축
- 제안사항
 - 문화영역 ODA의 활성화를 위한 법·제도의 고려 필요
 - 지속적인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
 - 국제적인 축제와 스포츠 대회 개최 시 사전 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 개도국 예술가와 스포츠인들에게 장기적인 초청연수를 제공할 프로그램 개발
 - 문화·예술·교육 분야 ODA 프로그램의 장르별 사업 확대: 현재는 음악·미술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

가구구성 변화와 소득불평등, 그 정책 함의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| 보건복지 Issue&Focus | 2013.11

<https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ation/periodical/focus/list.jsp?bid=21&page=2>

인구고령화에 따른 가구구성의 변화로 소득불평등은 꾸준히 증가

소득재분배 정책과 '분배 지향적 가구구조'를 위한 인구 및 가족정책의 병행이 필요

- 가구구성 변화
 - 1990 년에서 2012 년까지 우리나라는 노인과 아동이 없는 가구가 증가한 반면, 가구규모는 소규모화
 -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가구규모의 축소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
- 소득불평등 동향
 - 1990 년에서 2009 년까지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꾸준히 증가한 이후 다소 감소 및 정체 상태
 - 1990 년에서 2009 년까지 부유층도 빈곤층과 비슷한 추이로 확대되면서 중간층 규모만 축소
- 정책함의
 - 소득재분배 정책: 가구구성비의 변화가 큰 가구의 소득분배에 집중이 필요하며 아동이 없는 소규모 가구의 소득불평등 개선
 - 비수급 빈곤노인의 보장성 강화, 기초연금의 내실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
 - 인구 및 가족정책: 대상 가구들 내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더불어 '분배지향적 가구구조'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정책의 병행이 필요
 - 아동이 없는 소규모 가구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
 - 대규모 가구의 비중확대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가구규모의 확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

여성 경제활동 현황, 결정요인 및 효과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| 보건복지 Issue&Focus | 2013.11

<https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ation/periodical/focus/list.jsp>

취업망 친화적인 보육시스템으로 정비

여성 일자리 질의 제고와 비경활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

- 여성 경제활동 현황
 -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36 개국 중 111 위
 - ‘워킹맘 고통지수’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.1%가 ‘고통을 느낀다’고 응답
- 문제점
 - 여성 일자리의 불일치
 -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동향을 보면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크게 증가
 -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줄어든 대신 상용직과 임시직 비중이 꾸준히 증가
 - 비정규직의 비율이 40% 이상으로 남성(26%)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
 - 보육시스템의 문제
 - 경제적 여력이 있는 여성들은 육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취업에 나서기가 쉽지 않음
 - 민간보육시설에서 취업망 자녀를 꺼려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며 영아에 대한 안전대책도 취약
 - 9 시간 이상 보육을 원하는 취업맘은 많으나 장시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의 접근성은 취약
- 여성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
 - 여성 일자리 질의 제고
 - 비경활 여성들의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
 - 취업망 친화적 보육정책으로 재편
 - 취업망 중심의 보육제도 설계가 필요
 - 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공공 및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

2013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

KB 경영연구소 | 이슈리포트 | 2013.10.21

https://www.kbfg.com/kbresearch/index.do?alias=report&viewFunc=default_details&categoryId=1&menuId=15&boardId=104&articleId=1002543

**부동산자산 유동화를 통해 부족한 노후준비자금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비은퇴 가구의 원활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자녀와 관련된 비용지출의 효과적 관리가 우선**

-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진단
 -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를 종합 평가한 2013 년 KB 노후준비지수(50.3)는 2012 년(53.3)에 비해 하락
 - 비은퇴자 56.7%의 KB 노후준비지수는 50 미만이며 재무적 준비 취약계층은 더욱 증가
- 부동산자산을 활용한 재무적 노후준비 개선 가능성
 - 전체 비은퇴 가구 중 부동산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68.6%로 향후 노후생활 재원으로 활용 가능
 - 부동산자산 유동화에 따른 노후준비 개선 효과는 부동산자산 가치가 높은 지역(수도권, 부산 등)의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시사점
 - 전체 비은퇴 가구의 가구 간 노후준비 차이에 따른 양극화는 여전
 - 부동산 보유율이 높은 4~50 대 가구는 부동산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부족한 노후준비자금의 일정부분을 보충할 것으로 기대
 - 비은퇴 가구의 원활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자녀와 관련된 비용지출의 효과적 관리가 우선

기업 구조조정 제도, 선제적 대응 기능 높여야

LG 경제연구원 | LGERI 리포트 | 2013.11.13

<http://www.lgeri.com/economy/domestic/article.asp?grouping=01010100&seq=951>

도산법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허용, 자산매각 등 선제적 구조조정 강화, 주식매수청구권 예외규정 허용

- 기업 구조조정 효과
 - 통합도산법 상 법정관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구조조정 이후 크게 개선
 - 워크아웃 기업들은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비율을 빠르게 감소시킴
 - 성과개선 측면에서 법정관리가 워크아웃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
 - 최근 구조조정 기업들은 구조조정 이후 재무상태가 개선되었지만 부실화 위험은 여전히 상존
- 도산법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
 - 은행법을 개정하여 법정관리 이전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
 - 자산 매각 등 선제적 구조조정 강화
 -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상장회사가 자산의 일정 비율 이하를 매각할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 예외규정 허용

모방하기 힘든 경쟁력, Collaboration 역량을 높이려면

LG 경제연구원 | Weekly 포커스 | 2013.11.6.

<http://www.lgeri.com/management/organization/article.asp?grouping=01020200&seq=519>

Collaboration 의 핵심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

- 구성원들의 Collaboration 을 가로막는 원인
 - ‘내가 얻을 것이 없다’는 인식
 - 이타적인 동료에 대한 미묘한 거부감
 - Collaboration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 간과
- Collaboration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
 - Game 의 이름 바꾸기: 게임의 이름이 일종의 암묵적인 규칙처럼 인식되었기 때문
 - 새로운 방향의 평가/보상 모색: Collaboration 을 촉진하기 위한 동기부여 요인 중 하나인 자기학습의 강조
 - 15 미터 법칙 적용: 근접성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
 - 숙성의 시간 부여: 구성원들이 팀워크를 발휘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이 필요
 - Collaboration 형 인재에 대한 인정: Collaboration 을 잘하는 구성원들이 더 흥미롭고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개인별 명성 평가 시스템 도입
- 시사점
 - Collaboration 의 핵심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: 지식경영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핵심 주체인 사람에 대한 고민 없이 시스템 구축에만 몰두했기 때문

※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
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.

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
email: urbandata@si.re.kr
phone: 02-2149-1022